



원자력 NEWS

“사용후연료 처리 시설 내년 공론화 추진” 산업자원부, 2016년 저장 용량 한계 도달

산업자원부는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내년에는 일반 대중과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사용후연료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 국가 에너지위원회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에서 논의에 착수해 올해 4차례 회의가 진행됐다"며 "갈등관리전문위원회는 지난 4월에 '사용후연료 공론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7차례의 회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아울러 "올해는 이 태스크포스를 통해 주요국의 사용후연료 공론화 추진 사례와 관리 현황에 대한 내부 논의에 주력한 뒤 내년에는 일반 대중과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총20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연료의 처리 시설 총용량은 1만2천561t이나 지난 5월 말 현재 용량의 70.2%인 8천814t이 채워져 있으며 오는 2016년이면 저장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방폐장 명칭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로 확정 2009년 말까지 10만 드럼 용량 1단계 공사 완료

지난 2005년 주민투표로 유치가 확정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공식 명칭이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로 확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경주 방폐장 이름 공모를 통해 공식 명칭을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는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월성원전의 브랜드가치를 활용하고 방폐물을 잘 관리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자는 친환경적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이 지난 7월 15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방폐장 이름 공모 행사에는 1627명의 경주시민과 원자력 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해 2479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특히 응모자의 65%가 경주시민으로 지역에서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수원은 최종 심사 결과 최우수작을 선정하지는 못했지만 우수작과 네이밍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3차례의 심사를 거쳐 이번 방폐장의 공식 명칭을 확정했다.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는 지난 7월에 착공하여 2009년 말까지 10만 드럼 시설 용량에 해당하는 1단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캐나다 우라늄광 본격 개발 사업 시동

한전 등 국내 4사 컨소시엄

한국전력, 대한광업진흥공사, 한화, SK에너지 등 4개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은 캐

나다 캔알래스카사와 캐나다 크리이스트 (Cree-East) 지역에서 우라늄 공동 탐사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10월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서명식을 가졌다.

한국전소시업은 앞으로 4년간 1900만캐나다 달러(약 160억원)를 투입, 크리이스트 지역의 우라늄광 부존 확인을 위한 탐사 사업을 진행하며 4년 뒤에는 캔알래스카로부터 광구 지분 50%를 인수하게 된다.

광진공 관계자는 “크리이스트 지역은 세계 1위의 우라늄 생산지인 사스카치완주 아타바스카 분지 남동부에 위치, 우라늄광의 부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산업자원부는 우라늄 탐사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해외 자원 개발 성공불용자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용자 지원율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공불용자는 자원개발사업에서 탐사 성공시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받고, 실패 시에는 원리금 상환을 대폭 경감해주는 용자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가 캐나다 워터베리지역에서 우라늄광을 탐사하기로 하고 캐나다 측과 공동 탐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대우인터내셔널은 한동안 중단됐던 베이커레이크 우라늄광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실행 가능성 평가를 하고 있다.

아울러 광진공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호주 지역에서도 우라늄 탐사에 나서기로 하고 현재 마라톤, 아마데우스 등 2개 사업에 대해 현지 업체들과 탐사 및 지분 인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한편 광진공이 그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우즈베키스탄 잔투아르 지역의 경우 1만5000

톤의 우라늄 매장량이 확인돼 오는 2011년쯤 생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원자력안전협약 국가보고서 IAEA 제출 과기부, 13개 협약 의무 사항 이행

원자력안전협약에서 규정한 13개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됐다.

과학기술부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가 이행한 원자력안전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가 IAEA 사무국에 제출돼 국제적으로 검토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원자력 안전협약은 1986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해당 국가의 노력과 국제 협력을 확대키 위해 IAEA 주도하에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했다.

IAEA 사무국은 원자력안전협약에 가입한 60개국의 국가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키 위해 이들 국가를 발전용 원자로 기수를 기준으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의 의장단을 선출한다.

이들 그룹은 의장단의 지휘 아래 내년 4월에 개최될 제4차 국가보고서 검토회의 전까지 국가보고서를 상호 검토하게 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제 사회로부터 원자력안전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공개적으로 검토받음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내 방폐장 안전성 심사 투명성 높인다 IAEA 전문가 Peer Review 실시

과학기술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안전성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의 검토(Peer Review)를 받는다고 밝혔다.

IAEA 전문가 검토에서는 유럽연합과 프랑스, 핀란드 등의 원자력 전문가 4명이 처분 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들을 국제적인 처분 시설 안전성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 검토와 면담(질의, 응답),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검사하게 된다.

이번 전문가 검토는 현재 원자력 안전 규제 전문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안전성 심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과기부는 검토 결과를 국내 심사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지난 1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에 대한 건설·운영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뢰해 건설 및 운영 등에 따른 안전성을 심사하고 있다.

한수원-AECL-중기 우수 기자재 공급 협력 한수원 브랜드 바탕 12개 중기 AECL 공급자 등록



우리나라 우수 중소기업들이 세계적 원자력 업체인 캐나다의 AECL에 원자력 기자재를 대량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9월 20일 한수원 본사에서 캐나다 주기기 공급 업체인 AECL, 한수원, 12개 중소기업이 기자재 공급 협력 3자간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한수원 브랜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AECL에 기자재 유자격 공급자로 등록하고 향후 기자재 공급에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AECL을 통해 세계 각국의 중수로형 원전에 수출이 가능해진 품목은 두온시스템의 '지능형 차압전송기', 서진인스텍의 '초고압 고온 수위 계측기', 디케이테크의 '계장용 관이음쇠 및 밸브' 우진의 '원자력 계측기' 등이다.

앞서 한수원은 중소기업의 AECL 기자재 납품을 지원, (주)무진기연은 중국 진산원전에 약 500만 달러, (주)티에스엠텍은 월성원전에 250만 달러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윤종근 한수원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날 "이번 기자재 공급 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내는 물론 캐나다, 중국, 루마니아, 인도 등 해외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에 진출할 수 있게 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 업체 대표인 조성은 무진기연 대표이사도 "원자력발전소 관련 기자재는 기술 수준이 높아 일반 중기의 수출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한수원의 브랜드를 통해 AECL 부품업체로 등록되어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 원자력 핵심 기술 공동 개발기로 한·미 I-NERI 위원회 개최

미국과 우리나라가 미래 원자력 핵심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과학기술부는 10월 16일 대전에서 미국 에너지부와 '한·미 I-

NERI 위원회(Bilateral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Committee, BINERIC)'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 동안 한·미 공동으로 추진해온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할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I-NERI 프로그램의 향후 협력 분야 및 내년도 추진 일정 등에 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그동안 한국은 한·미 I-NERI 프로그램을 통해 원자력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소듐냉각고속로(SFR), 초고온가스로(VHTR) 등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공동 개발해 왔다. 과기부 관계자는 “한·미 I-NERI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미래 원자력 분야의 핵심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국 TQNPC 대표단 한수원 방문 양사 간 연례회의 개최 제의



중국 친산제3핵전유한공사(TQNPC)의 웨이귀량 사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10월 10일 한국수력원자력을 방문, 양사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협력 회의를 가졌다.

협력 회의에서 웨이귀량 사장은 지난 5월에 한수원이 수행한 친산 3단계 1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 기술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양사 간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연례회의 개최를 제의했다.

유승봉 해외사업처장은 한수원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호혜적으로 친산 측과 계속 협력해왔음을 언급하며, 양사 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진일보시키기 위해서는 공동 사업 추진과 같은 발전적인 형태의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QNPC는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의 자회사로 월성 1·2발전소와 동일한 노형인 친산 원전 3단계 1·2호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6월 한수원과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했다.

그 동안 한수원은 월성 원전 운영을 통하여 축적한 풍부한 운영 및 정비 기술을 바탕으로 친산 원전 3단계에 핵연료 교환기 정비 기술 자문, 연료 취급계통 운전원 교육 훈련 등 총 15건의 기술 지원(약 5백만달러 규모)을 제공했다.

한수원은 TQNPC가 최근 중국 정부가 계획 중인 산둥성 루산 원전 건설 프로젝트 주관 회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운영, 정비 분야 협력 사업과는 별도로 루산 원전 프로젝트의 건설 분야 신규 사업 개발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수원·스위스 나그라 MOU 체결 방폐물 관련 선진 기술 공동 연구 기반 마련

한국수력원자력(주)는 10월 4일 스위스 나그라(NAGRA)와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기술 정보 교환과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세계적 수준의 방사성폐기물 중간 저장 시설인 즈윌락(ZWILAG)을 운영하고 있는 나그라와 협약을 맺음에 따라 앞으로 한수원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 시설 건설 및 운영, 처분 시설 환경 및 안전성 관련 분야, 사용후연료 중간 저장, 처분 분야 등 방폐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선진 기술을 습득 또는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스위스 나그라는 중·저준위 및 고준위 방폐물, 사용후연료, 동위원소 등을 중간 저장하는 시설인 즈윌락(ZWILAG)을 운영하는 것 이외에도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유럽 내 6개국 10개 연구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국제 연구 시설(Mont Terri Rock Laboratory)도 보유하고 있다.

원전 중대 사고 종합 해석 코드 개발 KAERI, PWR 및 차세대 원전 모두 적용

한국원자력연구원 종합연구센터 김동하 박사팀은 ‘원전 중대 사고 종합 해석코드’를 개발했다고 과학기술부가 최근 밝혔다. 7년여의 연구기간을 거쳐 개발된 이 해석 코드(MIDAS : Multi-purpose Integrated Assessment code for Serere accidents)는 포인트 변수를 사용한

새로운 중대 사고 모델을 추가한 것은 물론, 기존 모델 변경이 어렵다는 MELCOR 코드의 단점을 개선했다. 즉 포인트 변수를 모듈화된 변수로 대체함으로써 사용자가 변수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국내에서 개발된 중대 사고 모델을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국산 전산 코드는 고리 및 울진, 영광 등 가압경수로형 원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차세대 원자로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본과 원전 내진 안전 기술 협력 나서 김중신 한수원 사장, 가리와 원전 방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의 지진 안전 대책을 마련키 위해 일본과 기술 협력에 나섰다. 김중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동경전력 소속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을 긴급 방문해 피해 상황과 대응책 등을 살펴보고 지진 관련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카즈마타 동경전력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중신 사장은 “강도 6.8의 강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설물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원전 관련 구조물이나 원전 기기 계통의 시설물에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 큰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보니,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일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난 8월 구성된 '원전지진안전특별대책팀'을 통해 철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원전 내진 안전성에 대한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신 사장은 미하마 원전 3기와 쓰루가 1호기의 계속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루가시를 방문하고 카와세 시장과 지역 공동체 경영에 대해 협의했다.

방폐물처분장 및 사용후연료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한수원, 방폐장 안전성 및 수용성 제고 방안 논의

‘2007 방폐물처분장 및 사용후연료 국제 심포지엄’이 10월 4, 5일 이틀에 걸쳐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개최하고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한국원자력학회가 후원한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2005년 11월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가 경주로 최종 선정된 후 착공에 대비해 방폐장의 안전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본격화될 사용후연료 공론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한수원 원자력발전기술원의 김창락 박사는 “방폐장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안전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였고 방폐물 처분 사업 추진 단계별 안전성을 확보하여 한국 방폐장의 신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아레바의 Henry-Jacques Neau 부 사장은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일자리 중

20%를 원자력 관련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고, 핀란드 올킬루토 방폐장이 위치한 유라조키시의회 루칸더 의원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지역 사회 공헌도에 힘입어 주민 59%는 고준위 폐장인 사용후연료 처분장 유치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례를 발표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지역정책연구소 이영찬 박사는 ‘방폐장 유치 이후 경주지역사회 발전적 변화에 관한 연구’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로 인해 2020년에는 2005년 대비 인구 약 5만명, 사업체수 1만개, 주택수 약 2만8000호, 지역 내 총생산액 약 6조원 및 주민 소득은 약 2배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전했다.

사용후연료 문제를 거론한 스위스 나그라의 한스 이슬러 사장은 스위스의 경우 수 차례의 주민 투표를 거쳐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사용후연료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투명한 처리 과정, 책임 규제, 포괄적인 정보 전략과 모든 이해 관련자들의 참여를 거쳐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사용후연료 공론화’를 주제로 발표한 경희대 황주호 교수는 2004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건의된 바 있으나 진전이 없다며 올해 다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법 적용을 위해 입법 예고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조석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기획관, 백상승 경주시장, 한스 리오테 OECD 방폐물국장, 패트릭 포송 프랑스 원전시설 유치지역 대표자위원회 부회장, 한스 이슬러 스위스 나그라(NAGRA) 사장 등 국내외 원자력계 인사와 경주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의 원전 기술 미래 모색

산자부·한수원 공동 원자력발전워크숍 개최

원자력 발전 기술 개발 관련 워크숍이 산업자 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공동 주관으로 10월 8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렸다.

정부의 원자력 정책자,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미래를 향한 원전 기술'이란 주제 하에 전력 산업 연구 개발 사업으로 추진중인 원자력 발전 기술 개발 사업의 우수 연구 과제 성과 및 원전 핵심 기술 추진 현황이 발표됐다.

산자부는 올해부터 원전 기술의 선진화 및 해외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까지의 중장기 원전 기술 개발 계획인 '원전 기술 발전 방안(Nu-Tech 2015)'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를 토대로 원전 설계 핵심 코드 기술 개발, 원자로 냉각재펌프(RCP) 기술 개발, 원전 주 제어실 인간·기계 연계 시스템(MMIS) 기술 개발, 원전 연료 신뢰도 제고 방안, 원자력 종합 기술인 국산 고유 신형로(APR+) 개발 등 원전 핵심 기술의 추진 현황과 사업기간 중의 연구 개발 성과 확산 등 상용화 촉진을 위한 우수 연구 과제의 성과 발표를 위한 논문이 소개됐다.

'원전 기술 발전 방안'의 기본 방향은 원전 기술의 해외 수출 산업화를 위한 핵심·원전 기술을 확보하고 선택과 집종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 국가전략 과제 점유율을 80%까지 확대하며 산·학·연 기술 협력 체제 구축 및 효율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 원자력계는 이번 워크숍 및 발표회를 통해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나아가 할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현재 추진중인 중장기 원전 기술 개발 계획에 반영, 이번 계획이 종료되는 2015년에는

세계 4위권의 원전 기술 수준 달성과 함께 해외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제2차 원자력 릴레이 포럼 개최

'신산업을 창출하는 방사선 융합 기술' 주제

제2차 원자력 릴레이 포럼이 '신산업을 창출하는 방사선 융합기술'이라는 주제로 10월 2일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 방사선과학연구소 조성기센터장은 강연을 통해 방사선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고 실생활의 여러 분야에 폭넓게 이용되는 유용한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방사선과학연구소 이주운 박사가 '웰빙 시대의 주역을 담당하는 방사선 융합 기술', 강필현 박사가 '신산업 창출의 원동력으로서 방사선 융합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포럼 후에는 정부 관계자와 방사선과학연구소 책임자들이 방사선과학연구소 인근 주민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원자력 및 방사선의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에 감사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방사선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방사선과학연구소는 개소 1주년 행사로 이번 포럼 개최와 함께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방사선과학연구소 개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방사선과학연구소는 이날 행사를 통해 방사선 이용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초등학생 과학백일장 ▲초등학생 축구대회 ▲과학체험 활동 ▲농약공연 ▲무료 진료활동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열었다.

방사선.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연차대회
방사선 이용 기술 점점 미래 발전 방향 모색

과학기술부는 10월 4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강당에서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와 공동으로 '2007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연차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연차대회는 방사선 기술 분야의 각계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Global Wellbeing with Radiation Technology'란 주제로 정운 과기부 차관과 변명우 방사선과학연구소장의 특별 강연 및 3개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정운 과학기술부 차관은 '미래 대비 전략과 비전'이라는 특별 강연을 통해 ▲지구화-세계화 진전에 따른 과학 기술의 중요성 ▲한국의 과학 기술 역량제고를 위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 ▲거대, 기초과학 사업의 확대 ▲기반 구축 및 국제화 촉진을 통한 과학 기술 중심 사회 구축 등을 역설했다.

변명우 소장은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성화 계획'이라는 주제로 세계의 비발전 분야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산업 동향과 우리나라의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진흥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외에도 ▲핵의학 기술 분야 ▲방사선 기술 분야 ▲방사선 방 분야 등 3개 분야 주제 발표를 통해 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최신의 방사선 이용 기술 및 기술 개발 동향도 함께 소개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방사선 이용 진흥과 안전 문화 정착에 공로가 큰 ▲이유교 한양대학교 연구조교수 ▲김형철 자비스 대표이사 ▲이연주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연구원 선임보연구원 ▲이재실 한전KPS 월성 제1정비사업소 과장 ▲이중환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 등에게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장이 수여됐다.

영광 3호기 1,000억 kWh 달성 기념 행사 개최
기념석 제막, 영광 3,4 호기 역사관 개관



한수원(주) 영광원자력본부(본부장 이심교)는 10월 5일 김종신 사장과 김성재 노조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 3호기의 발전량 천억 kWh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 행사는 기념식, 기념석 제막식, 3,4 호기 역사관 개관식 및 운전원 격려(주제어실 순회)순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발전량 천억kWh 달성에 대한 경과 보고, 유공자 시상 및 협력회사에 대한 공로패 증정이 있었다.

김종신 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온 영광원자력본부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영광 3호기의 발전량 1,000억kWh 달성은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준 따듯한 노력의 결실로 우리의 크나큰 자부심이 될 뿐 아니라 국내 원전의 해외수출 추진에도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상의 설비신뢰도 유지 및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

부하였다.

기념 행사에 이어 2발전소 입구에 설치된 기념석 제막식과 '영광 3,4호기 역사관' 개관식이 진행되었다. 역사관은 영광 3,4호기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생산된 사료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료와 그 동안 발생된 발전소 고장 정지 사료를 한곳에 모아 전시한 곳으로 한국표준형원전 효시 원전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원전 운영 및 정비에 대한 안전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원전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료실이다.

한국표준형원전의 효시인 영광 원자력 3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는 1995년 3월 31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 지난 2007년 8월 28일 오전 4시경 총누적 발전량 1,000억kWh를 기록한 바 있다.

영광 원자력 3호기는 미국 NEI에서 선정하는 이용률 세계 1위를 1998년도와 2004년도에 각각 달성하였고, 지금까지 네 차례의 한 주기 무고장 안전 운전(OCTF)을 달성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소로 인정받고 있다

루마니아 원전 사업자 한수원 역할 기대 표시

체르나보다 2호기 준공식 초청 참석

한국수력원자력(주)이 10월 5일 루마니아 정부 초청으로 체르나보다 2호기 준공식에 참석, 향후 협력 관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승봉 한수원 해외사업처장은 이날 체르나보다 원전의 운영사인 키리카 루마니아 원자력공사 사장을 만나 한수원 사장을 대신, 준공 기념 축하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타리시아누 루마니아 총리, 보스가니안 경제재무부 장관, 메스차 차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주계약자인 페트루닉 캐나다 원자



력공사(AECL) 사장 직무대행, 프란세스코 머즈차 이탈리아 Ansaldo의 사장 등이 참석했다.

루마니아 정·재계 인사들은 한국에서 준공식 참석을 위해 방문한 한수원 측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특히 키리카 원자력공사 사장은 향후 계획 중인 체르나보다 3,4호기 사업에서 한수원의 주요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를 표시하기도 해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행사 참석으로 루마니아 정·재계 인사들에게 한-루 원전사업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이를 통해 향후 3,4호기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르나보다 2호기는 공사 중단, 재개를 반복한 끝에 지난 2000년 초 공사를 재개, 7년만에 준공식을 갖게 됐으며 루마니아는 80년대 초 체르나보다 1~5호기를 동시 착공한 이래 자금난 등의 이유로 2~5호기는 90년대 초 공사를 중단했으며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한 1호기만 지난 1996년 말부터 상업 운전을 하고 있다.

울진 원전 테러 대비 훈련 실시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본부장 박현택)는 10월 11일 민·관·군·경 등 90명이 참가한 가



운데 ‘울진 원자력 테러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K-2 소총으로 무장한 정체 불명의 테러범들이 울진 원자력 홍보관 건물을 침입해 근무자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특공대가 신속하게 투입돼 테러범을 진압하는 상황을 설정해 전개됐다.

이번 훈련은 특히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공포탄을 쏘고 소방대 구급차 등이 환자들을 신속하게 후송하는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테러 대비 훈련이었다.

원자력연구원, 주민협의회 개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역 주민들과 신뢰를 쌓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 노력을 알리기 위해 최근 발족한 ‘원자력 시설 안전을

위한 주변 주민 협의회’ 1차 회의를 9월 19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민협의회 회장을 맡게 된 김정운 대전 유성구 구즉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 대표위원 8명과 원자력 관련 기관 대표위원 4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김정운 회장은 인사말에서 “주민들과 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이 진솔한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에 정연호 원자력연구원 원장 직무대행도 “주민 대표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원자력연구원, 한전 원자력연료(주), 한수원 원자력발전기술원 등 3개 기관에 임시 저장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현황을 보고받고 원자력연구원의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저장고, 지하 처분 연구시설 등을 직접 둘러봤다.

주민협의회는 지난 8월 연구원의 우라늄 시료 분실 이후 연구원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발족한 협의체다.

일본 구주전력 정기연수단 월성원전 방문

일본 구주전력의 정기연수단 가와키타 유이치(河北 裕一) 부단장 등 일행 8명이 10월 12일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태성은)를 방문해 배전 원자력 자재 영업 등 부문별 연수 후 월성 원전과 신월성 건설 현장과 방폐장 부지를 둘러봤다.

일본의 구주전력(九州電力)은 후쿠오카에 본사를 두고 구주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1975년부터 사가(佐賀)현에서 겐카이(玄海)



원전의 운영을 시작해 겐카이(玄海) 원전 4기와 가고시마(鹿兒島)현에서 운영 중인 센다이(仙台) 원전 2기 등 총 6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연수단 가와키타 유이치(河北 裕一) 부단장은 “한국의 우수한 원전 운영과 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라며 “양국이 전력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교류와 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

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주문화엑스포내 한수원 홍보관 관람객 1만명 돌파

경주세계문화엑스포내에 설치된 한국수력원자력 임시홍보관 방문객이 1만명을 돌파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방폐장건설처는 10월 3일 2007 경주 엑스포 임시홍보관에 1만명 제로 방문한 김성환(대구 동구, 목사)씨에게 축하의 꽃다발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했다. 단기간 내에 이처럼 많은 방문객이 다녀간 것은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세계 문화 체험을 즐기려는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한수원은 임시 홍보관 내에 홍보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 엑스포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친환경 에너지 기업 이미지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人事動靜

2007. 9. 21 ~ 10. 17

[국가핵융합연구소]

2007-10-1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한국사업단장이경수

2007-10-12

△선임연구단장 권면 △감사부장 김준겸 △연구품질보증부장 김혁중 △KSTAR 연구센터 센터장 박주식 △운전·실험연구부장 오영국

△시스템연구부장 양형렬 △극저온연구부장 김양수 △연구지원실장 하태형 △선임연구단 토카막연구개발그룹장 김진용 △미래전략연구 그룹장 한정훈 △핵융합기술개발그룹장 오상준 △응용기술개발그룹장 이봉주 △정책기획부장 김인호 △기획예산팀장 조연수 △성과관리팀장 김오진 △홍보팀장 박윤진 △경영지원부 총무인사팀장 정병국 △구매조달팀장 및 재무회계팀장 조성운(겸직) △시설안전팀장 이제묘